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박정환·신옥주, 『우리들의 친구 김대건 신부님』(2004).
브론즈, 서울 절두산순교성지.

† 오늘의 전례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마태 10,17-22 참조)

우리 민족 최초의 사제이신 김대건 신부님께서서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겨레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아까운 분이 첫 번째 제물로 주님 제단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느님께 무엇이든 바칠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바치지 않고 제일 좋고 귀한 것을 바치는 법입니다.

제1독서 2역대 24,18-22 **제2독서** 로마 5,1-5 **복음** 마태 10,17-22.

입당송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네.
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네.

화답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김영우 마르코 신부 | 성동본당 주임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방인 사제였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떠올려 봅니다. 신부님은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첫 사제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생각하면 아깝고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서품을 받은 후에 하시고 싶은 일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서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 교회에 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1년 남짓 사제로 살다 가셨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신부님은 1836년 15세의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마카오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1845년 8월 17일 김가항에서 사제로 서품되시고, 그곳의 만당 소신학교에서 첫 미사를 드림으로써 조선교회의 첫 사제가 되셨습니다. 1846년 6월 5일 순위도에서 체포되셨고, 1846년 9월 16일 26세의 나이로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사제로 서품되신지 1년 1개월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렵고 험한 먼 길을 떠나서 힘들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짧은 기간에 보여주신 사제적 열정과 죽음을 통하여 하신 그 증언은 더없이 고귀하기에, 오랜 기간의 활동보다 더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과 함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굳건한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반성해봅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조금만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어려움에 직면하면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이 뒤틀리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좀 귀찮다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쉽게 신앙을 등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리함과 자기 생활의 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의미보다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보장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한 것만 추구한다면 김대건 신부님 같은 위대한 신앙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김대건 신부님처럼 굳은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순교성인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필로**

가톨릭 문화 산책

소박하고 꾸밈없는 거룩함

〈독일 미사곡〉 - 1827



프란츠 슈베르트를 모르는 사람이 드물지만, 정작 이 음악가의 고향인 오스

트리아 사람들은 한국에 슈베르트가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이 음악을 즐기기도 음악가들의 이름을 줄줄 외는 데 치중했던 탓도 있지만, 아름다운 가락을 즐기는 한국 사람의 심성에 그의 음악이 잘 맞기 때문인 듯합니다.

슈베르트 하면 가곡과 교향곡 8번이 유명하지만 슈베르트는 뛰어난 미사곡과 성가도 많이 작곡했습니다. 교우 집안에 태어나 성당에 다녔을 뿐 아니라 오늘날 ‘비엔나 소년합창단’으로 알려져 있는 오스트리아 궁정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던 슈베르트는 1827년에 사상 최초의 독일어 미사곡을 쓰는데, 이 미사곡이 바로 가톨릭성가집에도 실려 있는 『독일 미사곡』(작품번호 872)입니다. 당시의 미사곡이 대개 화려한 오케스트라 반주를 사용한 감상용 연주였던 데 반해 이 미사곡은 성당에서 전례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교우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미사곡이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허용하기 140년 전의 일이었

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 미사곡을 전례에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교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사용하는 본당들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퍼진 소문에 큰 명성을 얻게 되어 오늘날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미사곡에 꼽히고 있습니다.

두 곡의 찬가와 파견성가까지 합쳐서 모두 아홉 곡으로 되어 있는 이 미사곡의 백미는 『거룩하시다』입니다(가톨릭성가 333번). 보통 유명한 작곡가의 미사곡을 들어 보면 『거룩하시다』는 장엄하고 화려한 편입니다만, 독일 미사곡의 『거룩하시다』는 아주 조용하고 단순합니다. 유행가처럼 A-A-B-A의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곡은 서정적이고 마음에 잔잔하게 퍼지는 감동적인 선율로, 한두 번 들으면 악보 없이도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으로 모자라 우리의 음식이 되신 주님, 그분 앞에서 만물이 숨을 죽이고 경배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소박한 노래입니다. 마치 우주의 임금님께서 보여주신 큰 겸손 앞에서 우리도 어린이와 같이 되자고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필독**

슈베르트의 〈독일 미사곡 Deutsche Messe〉은 아마존과 같은 미디어 판매 업체를 통해 구입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연주가 많지만 볼프강 자발리시의 지휘로 바바리아 방송교향악단과 바리톤 피셔 디스카우가 녹음한 EMI판(ASIN : B009FCX6EQ)을 추천합니다.



유월 유감

— 유월과 한티 성지와 사제 연중 피정 —

최홍길 레오 신부 | 수성본당 주임

옛 소신학교 시절 산보 할 때의 규칙이 생 각난다. “눈썹 두오, 라로 우누스, 셈뽀 프 레스, 셴 논 이이템(Nunquam duo, raro unus, semper tres, sed non iidem).” “둘이 서는 절대로 안 되고 혼자서 고독한 산보자가 되어서도 안 되며 항상 셋 이상, 그러나 항상 다른 셋이라야...” 이를 어기면 아모르 빠르띠 콜라리스(Amor Particularis)라며 복도에 무 릎을 꿇리거나 식당에서 밥을 끓여 먹게 하는 등 벌칙이 주어졌다. 무엇보다도 사제적 삶은 대인관계에서 편정(偏情)이나 편애(偏愛)가 아 니라 – 공인으로서 –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월은 예수 성심 성월이고 국가적으로 호 국보훈의 달이다. 금년 2015년은 민족상잔의 6.25 한국전쟁 발발 예순다섯 돌이 되는 해이 다. 필자의 경우, 해마다 유월이 오면 특별한 상념과 감동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30 일 한 달을 지낸다. 무엇보다 한티성지와 교구 사제 연중피정, 그리고 – 가톨릭신문 창간 당 시 사시(社是)의 하나였던 – ‘조국성화’와 민족 의 구원을 열망하며 묵상에 잠긴다. 유월에는 연중행사처럼 많은 교구와 수도회에서 – 재작 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구에서도 – 사제서 품식을 거행하고 있다.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 제성화의 날을 지내는 예수 성심 성월은 가히 사제의 달이라 할 만 하며, 예수 성심 성월에 사제 연중피정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 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가.

한티성지는 금년 2015년으로 1815년 을해 교난과 함께 교우촌 형성 200주년을 맞이하 였다. 눈을 들어 사방팔방 바깥 산야와 산촌 을 바라보면 이름 없는 무덤가 돌 하나 흙 한 줍 나무줄기 하나하나가 무심하게 보이지 아 니한다. 여기 특별한 의미와 새로움으로 우리 들의 가슴을 때리는 무언의 울림과 감동이 있 다. 이곳에 피정의 집이 마련되고 나서 교구 에서는 매년 유월이면 사제 연중피정을 해오 고 있으며 또한 후배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영 성관이 운영되고 있다. 순교자들의 순교혼이 배이고 대구 가톨릭교회의 숨결이 서린 이 곳 한티성지에서 순례와 피정을 함께 하며 순교 성인들의 천상전구를 빈다는 것이 얼마나 엄 청나고 크나 큰 감격과 감사와 은혜로움인가.

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서울 소신학교 교장으로 6.25 때 납북되신, 예수성심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이재현 요셉 신부님처럼, 예수성심의 흘러넘치 는 사랑가운데 신실(信實)하며 온전히 거듭나 고 후덕한 가운데 만나고 부딪치는 모든 이에 게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모습으로 새로워 지며 달라져야 한다는 자각이요 성찰이며 고 백이고 결심일 것이다.

“행동이 뒤 따를 때 입으로 하는 말은 효과 가 있습니다”(성무일도 독서의 기도 중 파도바 의 성 안토니오 사제학자의 말씀).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 판에 넘겨질 것이다”(마태 5.22). **필문**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신앙과 이성의 조화

이 사람의 스펙을 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15세에 대학 졸업, 16세에 석사학위, 18세에 학위 하나 더, 19세에는 첫 저서 출간, 21세에 박사... 무수한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과학 문명의 한 토대를 만든 고트프리트 빌헬름 폰 라이프니츠(1646~1716)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천재였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거의 동시에 미적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수학 공식의 표기법을 발명한 사람도 라이프니츠이고, 컴퓨터의 기초가 된 사칙연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처음 만든 것도 이 사람이며, 오늘날 디지털 문명의 바탕인 이진법 체계를 정리한 것도 이 사람입니다. 소립자가 발견되면 아직 400년이나 더 있어야 했지만, 우주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공통된 기본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가 열심한 신앙인이었던 것은 그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짐작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두뇌를 가졌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과 이성은 둘 다 하느님의 선물이다. 같은 분이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서로 어긋날 수 없다. 만약 어긋나 보인다면 공부를 덜 했거나 믿음이 어설프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의 가장 유명한 유산은 그의 세상을 보는 긍정적인 시각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가장 좋은 세상이며, 좋은 가능성을 무한히 포함하고 있다. 찰나를 사는 우리가 눈에 불완전해 보인다고 해서 하느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칼로**



라이프니츠(1646~1716)

금주의 성인

7월 5일	성 아타나시오(은수자, 수도원장, 아토스산, 920~1000년), 성녀 치릴라(순교자, 300년) 성 안토니오(신부, 설립자, 1502~1539년), 성녀 필로메나(동정녀, 산세베리노, 500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신부, 순교자, 한국, 1821~1846년)
7월 6일	성녀 고델리바(순교자, 1045~1070년), 성녀 도미니카(동정순교자, 캄파니아, 303년경) 성녀 마리아 고레티(동정순교자, 1890~1902년), 성 트란퀼리노(신부, 순교자, 로마, 286년) 성 로물로(베드로의 제자, 주교, 순교자, 피에졸레, 90년경)
7월 7일	복자 베네딕토 11세(교황, 1240~1304년), 성녀 에텔부르가(수녀원장, 파르무티에, 664년) 성 판테노(선교사, 신학원장, 200년경), 성 팔라디오(주교, 아일랜드, 432년)
7월 8일	성녀 수니바(동정녀, 노르웨이, 10세기), 성 아퀼라(사도들의 제자, 순교자, 1세기) 성 칠리아노(주교, 순교자, 뷔르츠부르크, 689년경), 성 하드리아노 3세(교황, 885년)
7월 9일	성 니콜라오 픽크(신부, 순교자, 고르쿰, 1572년), 성녀 에베릴다(수녀원장, 700년경) 성녀 베로니카(수녀원장, 신비가, 1660~1727년)
7월 10일	성녀 루피나(동정순교자, 로마, 257년), 성녀 세쿰다(동정순교자, 로마, 257년) 성녀 아멜베르가(동정녀, 템세, 772년경), 복자 엠마누엘 루이스(수도원장, 순교자, 1860년)
7월 11일	성 드로스탄(수도원장, 디어, 610년경), 성 비오 1세(교황, 순교자, 154년경) 성 베네딕토(수도원장, 설립자, 누르시아, 480~547년), 성녀 올가(과부, 키예프, 879~969년)



■ 5대리구 사제 피정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6월 26일(금) 오전 11시 한티 피정의 집에서 5대리구 사제 피정 파견미사를 봉헌하셨다.

■ 1990년 6월 서품 사제 은경축 미사



대주교님께서는 6월 29일(금) 오후 5시 30분 교구청 사제관 내 성당에서 1990년 6월 서품 사제들과 은경축 미사를 봉헌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27주간, 2015. 7. 5. ~ 7. 11.>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아가1-4장	5-8장	지혜1-4장	5-8장	9-11장	12-13장	14-16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아가서』

원하는 대로 만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찾는 여주인공의 이야기는 하느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곧 아가서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겪게 되는 ‘관계성’ 안에서의 절실함, 갈구, 희망, 절망을 노래하고 있다.

『지혜서』

- 첫째 부분(1-5장) :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혜’다. 그런데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찾는 것’(1,1)이다.
- 둘째 부분(6-9장) : 지혜의 기원과 본질을 제시하고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능가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을 소개한다.
- 셋째 부분(10-19장) : 아담부터 이집트 탈출까지 이끌어 오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편적 구원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다.

문의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적극 동참하십시오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 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6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7월 6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7월 6일(월) 11:0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6일(월) 11:00 죽도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7월 11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성바오로팔수도회 성소 모임(테클라 모임)

일시: 7.6(월) 19:00, 대상: 미혼 여성

장소: 바오로팔서원(동성로)

문의: (010)2503-5185

7월 한티 힐링 피정

기간: 7.11(토)~12(일)

주제: 외딴곳에서 좀 쉬자

지도: 여영환(오토) 신부

문의: (054)975-5151

예수회 성소 식별 피정

기간: 7.10(금)~13(월)

장소: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주제: 사람아, 영혼을 도우라

대상: 만30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김우중 수사, (010)6245-1608

영신 수련 피정(1:1개인지도)

8일 피정: 7.10(금)~19(일)

8.3(월)~12(수)

장소: 보은 메리워드 영성의 집

문의: (010)7254-6530 / (043)542-6995

제28차 신구약 성경 통독 피정

기간: 7.25(토)~8.2(일)

장소: 루하피정센터(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10)3758-3572, 홈페이지 참조

교육 | 모집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4박 5일: 7.13(월) 14:00~17(금)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기본1,2과정: 7.17(금) 15:00~19(일)

문의: (031)946-2337~8

5차원 전면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7.29(수)~31(금) 40기

장소: 구미선산청소녀수련관 / 28만 원

대상: 초·중고대생 / 다음카페: 유아청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예수성심전교남녀수도회 18회 슈발리에 축제

기간: 8.7(금)~9(일), 부산 본원

접수: 7.5(일)부터 선착순 / 6만 원

대상: 34세 미만 미혼 남녀

문의: (010)9330-3104 / (010)3241-3107

2015 하반기 임상사목교육 기본과정

기간: 8.11~12.2(매주 화 9:30-17:30)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문의: 940-7799 / 940-7203

cpefatima9099@hanmail.net

신앙수기 공모(내가 쓰는 수도원 기행)

내용: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2 출간기념

-수도원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

<http://www.bundobook.co.kr>

주최: 분도출판사

문의: (02)2266-3605

김길수 사도요한 교수와 함께 하는 순례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4박 5일 58만 원)

아키타 성모님 순례(2박 3일)

문의: 천주교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문의: (010)3375-4408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푸른평화예술치료 상담연구소

내용: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 및

진로·학습코칭, 가족치료, 집단상담치료

아동, 청소년 바꾸어 제공기관(수성구 관할)

다음카페: 우리마음연구소

문의: 794-6022 / (010)3513-2225

<http://www.ecopeace.or.kr>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U & 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동 새마을금고 옆
신매역 3번 출구 (천주성심병원 방향)
김경일 (아네스)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성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털리아)

대구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민주(레지나)

아토피센터 · 여드름 · 흉터 · 주름 · 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진진로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내거리 사이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 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 053)255-3134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1~중2: 8.3(월)~5(수), 무학연수원
중3~고2: 8.5(수)~7(금), 무학연수원
고3·대학·일반: 7.21(화)~23(목), 한티
참가자격: 예비신학교 등록생
신청: 각 본당 사무실 / 마감: 7.12(일)

2015 칠곡, 평화의 누릿길

일자: 9.5, 19(토) / 10.17, 31(토) / 11.14(토)
출발: 9:00 계산성당 / 2만 원(중식포함)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화관 등
www.dgpbcc.co.kr. 단체 신청 가능
주최: 칠곡군-대교PBC, 문의: 251-2610

교육 | 모집

ME주말과 함께 다시 떠나는 신혼여행

332차: 7.10(금) 19:30~12(일)
333차: 7.31(금) 19:30~8.2(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부부사랑은 성가정의 첫걸음입니다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2016 입학설명회

인성 등업, 학력 등업, 대건 등업
1차: 7.11(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2차: 10.3(토) 14:00, 대건고 안드레아관
문의(입학홍보실): 235-4560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초중고 캠프: 1차 7.18, 2차 7.25(4주)

대학생연수: 2차 8.29, 3차 10.3(8주이상)
부모동반연수: 7.18(토) 출발(4주)
특징: 영어연수, 체험활동, 해외봉사
문의: 656-6655(ARS 4번)

말씀으로 마음치유(독서치료)에 초대

일자: 9월부터(매주 금)
시간: 19:00~21:00(10주간)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서원 / 무료
대상: 남,녀(30대~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민요교실, 한국무용, 플루트, 우쿨렐레,
오카리나, 통기타, 바이올린, POP,
초크아트스폼, 톨페인팅, 성가반주법
장소: 지하철 1호선 교대역
문의: 476-6211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예약가능
문의: 제주운전기사사도회
(064)758-6476 / (010)4566-6476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지원자격: 35세 이상 미혼 여성
4년제 대학졸업자 중 가톨릭신자
근무조건: 기숙사 내 거주, 2년 계약
문의: 859-4063~4 / 마감: 7.22(수)

상세: <http://dormitory.cu.ac.kr>

2015년 안드레아유치원

정교사 및 부담임교사 채용

학급 추가 증설로 인해 정교사 및
부담임교사(2명)를 채용합니다
문의: 611-7952 / (010)9922-795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5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메르스 관련 안심병원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시고 이용시 10% 감면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구 법원 공식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일성, 변희수, 이세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교구에서 운영하는 『데레사소비
센타』는 수성구 황금동 소재 한
곳뿐입니다. 다른 장소에 있는 『데
레사농수축소비센타』는 개인 소
유로서 교구와는 무관합니다.

“아름다운 건강의 약속”
더 편한 내과가 함께 합니다.

더 편한 내과

부설: 건강검진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0
군청빌딩 3층 (구 달성군청)
원장 윤석진 (야교보) ☎ 053)651-7585

건물청소(입주, I·T청소(소독), 연간관리 등)
시설경비, 방역소독, 저수조청소(소독)
소방시설종합관리,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행복한세상
(취약계층아동 방과후 학교운영)
후원전화 070-8911-6033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중 훈 (바오로)

주요 진료: 아토피 | 알레르기 | 사마귀 | 티눈 | 건선 | 무좀
주요 치료: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온빌딩 3층 (구, 달성군청)
1호선 성당역 3번출구 T.053) 651-8800

Car Body Make-up
차량의 몸체에 화장을 입히자

차량광고도색, 차량랩핑, 실사출력
학원차량도색, 기업차량도색 및 랩핑
투수도장 대형 열처리 부스 3기 보유

www.dgcar.co.kr 황 용 호(루치아노)
☎ 053)963-4794 010-5913-8417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종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동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자이인식 · 렌즈삽입술 · 노안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 연세대학교교수
☎ 053)626-8881~5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관종 학회장 역임
대구 광복시내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